

» 2018 종계·부화업 결산

위기의 종계산업 극복을 위한 한단계 도약의 해



이 종 응
본회 경영정책국 차장

1. 종란납품계약과 납품가격에 대한 농가의 목소리

2000년 중반 이전은 수직계열화 구조가 확립되기 전으로 계열업체는 개인 부화장에서 병아리를 구매하는 구조로 종계 부화장은 육계시장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계열사 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공격적 투자와 생산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체 부화장을 확보하면서 종계장은 계열사에 종란을 판매(납품)하는 거래가 시작되었다.

계열업체와 농가 간의 계약서는 “육용종계위탁사육계약서”, “종계사육계약서”, “종계위탁사육계약서” “종란공급계약서” “종란매매계약서”, “육용종란생산매매계약서” 등으로 불리게 되었고, 현재는 “종란납품계약서”로 불리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계약 내용은 PS병아리와 사료를 계열업체가 선결제하여 종계농가에 판매하고 종계농가는 시산 후 도태 시까지 생산된 종란을 계열업체에 매매(선지급금 정산)하는 방식으로 육성 기간에는 일정한 생활비 선금 지급, 배부율 등에 따른 인센티브, 사육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증계농가는 증계부화산업 발전을 위한 선행사항으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정부에서도 AI 방역을 위해 표준약관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증계농가의 권익을 대변하는 표준계약서는 현재까지 전무한 상황이다.

이십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약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종란납품단가도 거의 변함이 없다(표1 참조). 이는 종란과 병아리를 바라보는 증계농가와 계열사 간의 관점이 다름이 가장 큰 원인이다. 증계농가는 종란을 생산·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최종재로 보고 있어 납품가가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어야 하며, 사육경비 보장, 배부율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거래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계열업체는 종란·병아리를 닭고기 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보고 있어 원가절감을 위한 방법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또한 계열사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증계장의 직영화로 자체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수급 상황을 판단하여 자체 병아리를 생산할지 외

부 병아리를 구매할지를 결정하는 구조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증계장과 부화장을 직영화하여 독점력을 갖춘 계열업체와 농가 간의 계약은 과도한 종속과 무리한 계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관행적인 "사료 400원/kg 기준 종란 개당 275원"의 종란납품단가의 구성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필요한 대목이다.

2. 증계농가 새로운 대안에 눈을 뜨다

증계농협협동조합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증계농가의 경영형태가 계열사 또는 대형업체의 종란납품 형태의 비중이 증가되고 주식회사형 계열업체의 사육업 진출 확대로 인한 사육기반 위축 및 소득 감소의 우려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협동조합설립”에 대한 여론이 뜨거운 한해였다.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계열사와의 상생 관계를 통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종란보다는 부가가치가 있는 병아리로 판매하자는 전략

이다. 또한 구매와 판매를 조합으로 일원화시키면 생산원가 감소로 Win-Win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였다. 또 다른 대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인데 이

표 1. 연도별 종란납품계약시 종란 및 사료 가격

(단위 : 개/원, kg/원)

구분	2007~2008	2012~2013	2017~2018
종란가격	185~205	265~280	275~280
사료가격	265~300	400	400

*자료출처 : 대한양계협회 설문조사



는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인지를 검토하여 품목을 지정하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 적 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부가 제조업에 해당되어 “농업”은 품목지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점 도출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적합업종 제도는 권고사항으로 민간 자율합의에 의해 정해져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어 종계농가의 소득개선을 위한 탈출전략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겠다.

3. 종계부화장방역관리요령과 난계대 질병 청정화 방안

정부는 2016년 난계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종계장부 화장 방역 관리요령”을 개정했다. 원칙은 닭 마이코프라즈마의 백신 사용 금지와 발생 시 도태 권고 및 처리지만, 농식품부 연구용역 결과 MG는 일부 지자체에서 관급으로 백신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MS의 경우 전국 종계장의 70% 이상의 높은 양성률로 검출되는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닭마

표 2. 연도별 종계농가 자조금 거출실적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10	평균
농가(호)	15	6	27	11	9	34	-	17
금액(천원)	8,782	2,289	20,506	7,829	26,826	25,248	6,177	13,951
총거출액(천원)	977,911	1,468,817	1,440,584	1,995,648	2,097,403	2,608,878	873,780	1,637,574
비율(%)	0.9	0.2	1.4	0.4	1.3	1.0	0.7	0.9

이코프라즈마는 3년간의 모니터링 후 관리 방안을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조건부 시행되었다.

본회 종계부화위원회는 난계대질병 및 농가의 소모성 질병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농식품부도 “난계대질병청정화방안”의 로드맵을 가지고 검토한 바가 있다. 이중 마이코플라스마병 방역 관리방안 등 “가금 질병 증장기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반을 학계, 생산자단체, 가금수의사회, 검역본부, 방역본부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하며, 종계장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이행 여부 확인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난계대 전염병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종계장 모니터링 검사결과 및 관리방안(16.7)”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2019년은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의 재검토 기간이 도래되는 해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MG, MS에 대해 관리요령에 따라 백신 사용금지, 1차 검사결과

양성을 30%이상 시 도태권고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종계부화농가의 실정에 맞게끔 관리요령이 재검토되도록 유비무환의 자세로 임해야겠다.

4. ‘종계’ 품목 닭고기자조금 인상

2009년 의무 닭고기자조금이 출범하고 9년 만에 처음으로 종계의 닭고기자조금 거출금액이 3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된다. 본회 종계부화위원회의 결의(10월)와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검토(10월)까지 절차를 마쳤고, 마지막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2019년에는 종계농가는 수당 60원씩 납부해야 한다. 종계농가의 닭고기자조금에 관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는 2012년부터였다. 종계의 닭고기자조금거출금액은 총 거출액의 약 1% 수준(표 2 참조)에 머물고 있지만, 자조금에 관한 인식개선과 인상에 따라 거출률은 증가될 것으로 집행부는 기대하고 있다. **양계**